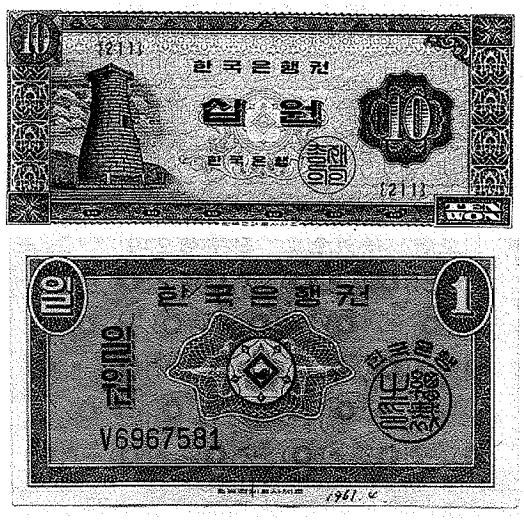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거침없이 키가 자라고,
가지를 뻗히고 잎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에서 열매들이 커 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동작 그만!'
높은 하늘이 소리 지르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씨앗을 여물게 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들이자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어느 하루도 소홀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은
다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 십 원, 일 원

붉그레한 바탕에 십 원짜리와 일 원 짜리 지폐,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눈깔 사탕에서부터 만화방, 달고나,딱지,구슬등 못 갈 데가 없었고 못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살 수 없이 초라해진 것은 그 때의 십 원짜리,일 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허영과 큰 것에만 눈 먼 내 모습이었습니다.


| 교 회 목 표 |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 교회생활지침 |
|---|---|---|
|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 **갈 보 리 교 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
| 제8권 52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6년 12월 31일 |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앤드류 마리아

한 사람이 주님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문을 열지 않고 닫힌 문 안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도 가지고 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겐 저의 덕행이 한 자루 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구나. 하지만 아직 문을 열어 줄 수 없네."

그 자리를 떠났다가 한낮에 돌아온 그 사람은 노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라도 가져왔느냐?"

"네, 주님. 저의 좋은 행실과 거룩한 공적이 한 자루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야. 하지만 아직 문을 열어 줄 수 없네."

그 자리를 떠났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문을 다시 두드리며
"주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의 명상과 간절한 기도가 한 숟가락 있습니다."

"너 참, 생각이 깊어졌구나. 하지만 아직 문을 열어 줄 수 없네."

그는 한 번 더 떠났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님,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뭐라도 가지고 왔느냐?"

"주님, 제 자신 말고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들어오너라!"
드디어 주님은 이렇게 소리치며 그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인간과 새, 인간과 짐승
인간과 곤충, 인간과 물고기 사이의
차이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자녀에게는
외모보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필요하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 | |
|---|---|---|
| 영 광 송<br>Glory | Calvary | 다 같 이 |
|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br>Confession Pray | | |
| 용서의 선언<br>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인 도 자 |
| *찬 송<br>Hymn | 23장 | 다 같 이 |
| *성 시 교 독<br>Response Readingd | 53(계시록 21장) | |
| *신 앙 고 백<br>Apostle's Creed | 사 도 신 경 | |
| 교 회 소 식<br>Welcome & Announcements | | 인 도 자 |
| 찬 송<br>Hymn | 543장 | 다 같 이 |
| 기 도<br>Pray | | 장현중 장로 |
| 성 경 봉 독<br>Scripture Reading | 빌립보서4:10-13 | 인 도 자 |
| 성가대 찬양<br>Choir | | 나무십자가 성가대 |
| 설 교<br>Sermon | 예수 안에 답이 있다 | 김성국 목사 |
| 찬 송<br>Hymn | 363장 | 다 같 이 |
| 헌 금 기 도<br>Offering Pray | | 인 도 자 |
| 응 답 송<br>Response Song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 다 같 이 |
| 축 도<br>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아름다운 성전을 생각하며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성전건축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총액:$282,254 |
|---|---|

◆1월 예배위원◆

| 일자 | 기 도 | 차 량 | 안 내 |
|---|---|---|---|
| 31 | 장현중 | 박일영 | 본당:김순자.윤주야 |
| 7 | 정덕수 | 백제성 | 현관:최재학.김교섭 |
| 14 | 최재학 | 양경배 | |
| 21 | 김교섭 | 이광희 | 새교우:이광희.이근평 |
| 28 | 김순자 | 이근평 | 장유진 |

◆1월의 교회력 ◆

| | 주 일 | 예배와 모임 |
|---|---|---|
| 7 | 신년주일 | 신년새벽기도회(2-5) |
| 14 | 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 | |
| 21 | 새성전입당 | 제직결단예배(24) |
| 28 | | 수요예배 시작(31) |

| 『교 회 생 활』 | 『교 회 등 록』 |
|---|---|
|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br>매일 가족위해 5분<br>매일 교회위해 1분<br>매일 남을위해 1분 |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br>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br>*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br>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5:55 | 청년부:토 오후 5시 |
|---|---|---|---|

1.교우소식
<이사> 권오걸,허미숙 집사. ☎631-0306. 12A Bracken Ave. Epsom

2.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돌립니다.

3.2007년 교회표어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빌4:13)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복 주심에 있기에 복주심을 간구하며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007년 봉사자:봉사자명단표를 참고 하여주십시오
*일생중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교우께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군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역편성은 추후에 싣겠습니다.

5.송구영신예배 **<일시> 31일(주일) 밤 11:30분 <장소> St David's Church**
*섣달 그믐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선조들의 말에는 새해를 깨어 있는 엄숙한 마음으로 맞으라는 깊은 뜻일 겁니다.
내 가족과 나의 일터를 위해 복 주심을 간구하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6.**『신년첫주간 새벽기도회』 <일시> 1월 2일(화)-5일(금) 새벽 5:55분**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위해 첫 주간의 새벽에 엎드립니다. 4일간 중 하루를 선택하여 새 해 가족들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7.수요예배가 방학중입니다. 은혜받은 이웃교회를 권하여 서로 이웃교회 참석을 독려하여 주십시오

**◀착한 시인들▶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이병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오해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용서가 되는데 미워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정다운 이들과 나눈 아름다운 대화들은
내안에 남아있고
사랑하는 이와 걸었던 오솔길엔
아직도 싱그러운 들꽃의 향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의 바램은 언제까지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세월은 내가 뻗은 손에서 한 뼘 만큼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려보고 싶었지만 늘 앞서 있는 세월을 좇아가기에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무엇으로 분주했으며 무엇으로 분노했고 무엇으로 애간장이 그리도 탔었는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묵직한 세월,
새 털 처럼 가벼운 내 살림살이입니다.